

지역 소식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됨: 비대면으로 성역을 베푸는 방법

제 일회장단은 지난해 9월 11일자 서한을 통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거나 대면 모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회장단과 평의회의 일원들이 함께 만나고,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역을 베풀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일회장단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은 낙담하지 않고 이를 유쾌하게 극복하고 교회 모임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모임이다.

온라인 모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모두가 이젠 익숙한 일상이 되었듯, 많은 와드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 모임을 진행한다. 더불어 전국 각지의 회원들은 일요일 정규 모임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및 지방부 대회,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 상호부조회 모임, 동계 청소년 대회, 와드 활동 등 다양한 모임을 온라인으로 시도하고 있다.

대면 모임과 다름없이 성도들은 비대면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성역을 베풀고, 영적으로 고양되며,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여 우정을 증진한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회 모임

대다수의 교회 회원은 2020년 연말에는 초등학교 발표를 볼



사진: 위쪽, 일산 와드 초등학교 발표회 영상, 아래쪽 왼쪽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서울 스테이크 대회,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서 스테이크 '가왕전',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2 와드 온라인 요리 활동 모임 '강마더가 간다'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 여러 와드 및 지부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온라인 성찬식 발표를 준비하고, 대면 발표처럼 능숙한 모습으로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 구절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했다.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몇 달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12월 20일에 온라인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회를 했다. 25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린이 찬송가를 배우고 외웠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모습을 녹화한 뒤, 와드 초등학교 회장단이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녹화본을 성찬식 시간에 송출했다.

일산 와드 초등학교 회장 기미미 자매는 비록 준비 과정은 예전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대면 성찬식 발표처럼 성신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한 각각의 녹화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면서 어린이들을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성찬식 발표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 부를 때 소리를 내지 않던 어린이들도 이번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진: 위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서울 서 스테이크 가왕전 장면, 일산 와드 초등회 발표 영상, 강남2 와드 비대면 활동 모임, '강마더가 간다', '온라인 경매의 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온라인 모임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청주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직접 계획하고 준비한 청소년 온라인 활동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모임의 홍보, 활동 계획 및 준비, 그리고 진행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 청소년들은 '가서 행하라' 5행시 짓기 이벤트, 복음 주제에 관한 토론, 경전 퀴즈, 게임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모임에 5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했다.

청주 스테이크 청남 회장단 제1보좌 허창범 형제는 청소년들과 함께 온라인 청소년 모임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을 이렇게 나누었다. "처음 시도해 보는 형식의 모임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할 만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임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면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원들과 청소년들의 봉사, 희생, 열정으로 하나씩 방법을 찾았고, 결국 무사히 모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였던 니파이전서 3장 7절의 '가서 행하라'라는 가르침처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명하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필요한 기술, 아이디어, 인력 등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우정을 증진하고 단합을 도모함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12월 26일에 연말을 맞이하여 노래 경연 대회인 '가왕전'을 개최했다. 2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은 예선을 거친 본선 참가자들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 가왕을 선정했다. '가왕전'의 사회자였던 인천 와드 김우림 형제는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전면적으로

취소되고 회원들이 영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우정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가왕전' 유튜브에 접속한 계정이 200여 개가 넘었는데, 각 가정에서 한 기기로 시청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참여자 수는 3~4배를 웃돌 것 같아요. 교회 온라인 모임도 이렇게 잘 준비된다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한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2 와드는 감독단의 주도하에 다양한 온라인 우정 모임을 시도했다. 10월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강마더가 간다'라는 특별한 모임을 했다. 와드 회원들은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요리연구가인 상호부조회 강유 자매의 지도에 따라 각자 가정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11월에는 '온라인 경매의 밤'을 열고 회원들이 내놓은 물품을 실시간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온라인 크리스마스 파티, 온라인 신년 모임 등을 준비하고 회원들을 초대하여 단합을 도모했다.

강남2 와드 감독단 제2보좌 박효민 형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드의 온라인 모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강남2 와드는 안식일 교회 모임 외에도 매달 청소년들을 위한 '와서 나를 따르라' 퀴즈 활동,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 그 외 각종 우정 모임 등을 통해 '힘이 미치는 한 자주 함께 모이려 노력합니다.(모사이야서 18:25, 모로나이서 6:5 참조) 대면 모임만큼 생생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문화가 더 널리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헬핑핸즈, 연말연시부터 이어진 온정의 손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전국의 헬핑핸즈는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헬핑핸즈 광주 센터는 성탄 절기 동안 '크리스마스 산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2월 23일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 총 서른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생필품 꾸러미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달했으며, 25일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가족을 위해 방한용품과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다.

난민, 이주민 가족들을 지원하는 유니버설문화원장 바수무쿨 씨는 물몬경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봉사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배우라’는 헬핑핸즈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모사이야서 2:17)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편, 헬핑핸즈 대구 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대구시 남구청에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성탄절을 맞아 대구 센터는 남구청 측에 5kg 백미 300포를 전달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대구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이수강 회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매년 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좋은 동기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헬핑핸즈 서울 센터는 지난 4년간 지역 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제공할 김치 김장 봉사를 했으나,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찾고자 했다. 봉사처를 물색한 끝에 서울시 농아인협회 산하 서울농아노인지원센터와 접촉했으며, 약 300만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여 12월 26일에 센터에 등록된 400여 명 중 200명에게 전달했다. 박인희 센터장은 “헬핑핸즈의 조건 없는 지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행사에 함께했던 서울 스테이크 자립전문가 조희철 형제는 “교회의 사명은 코로나19 이전이든 이후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헬핑핸즈 서울 동 센터는 1월 21일에 구리 종합 사회복지관과 남양주시 소재 요양 시설인 안나의 집에 겨울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해 보조 보행기 47대를 전달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와드 회원들은 여러 해 동안 안나의 집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어온 바 있다.

구리 종합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며, 헬핑핸즈에서 제공한 귀한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한 분, 한 분께 전달하겠다고 감사사를 표했다. 안나의 집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많이 끊겼는데, 헬핑핸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나의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



투병 생활과 비대면 예배: 시련을 통해 축복받다

서울 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이은주 자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약 3년 전, 나는 장염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혼자 몇 걸음 떼기조차 어려웠고 항암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병원에 머물렀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돌아오지 않아 빈 침대만 바라보곤 했다.

괴로운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말하기엔 오랜 기간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민망한 마음이 앞섰다. 나는 중학생이었던 35년 전에 이모의 권유로 침례를 받았지만, 큰 이유도 사건도 없이 저활동과 재활동을 반복하다 최근 8년 정도는 교회를 전혀 찾지 않았다. 병실 옆자리에서, 무교라던 젊은 아가씨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니 너무 부러웠다.

친동생에게 기적적으로 골수 이식을 받은 뒤에도 고열과 설사로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 나는 회복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회원이신 이모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에 모인 김포 와드 회원들이 나의 투병 소식을 접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김포 와드 배관봉 감독님이 방문하셔서 신권 축복을 해 주셨고, 당시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강진영 자매님도 방문하셔서 음식을 전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이모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몰몬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독님이 건네주셨던 몰몬경을 옷장 깊은 곳에서 꺼내 무작정 읽기 시작했다.

그다음날 아침부터, 기적처럼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전을 읽으라는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받은 축복인 것 같았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다시 한번 교회에 참석하고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강해졌다. 2020년에

회복되어 가면서, 상태가 더 호전되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감독님을 만나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십일조도 매달 모아두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20년 봄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얼마 후에 배 감독님이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하나 보내주셨다. 그것은 교회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했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어 감독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 8년만에 집에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화면 속 성도들의 얼굴이 반가웠고 매주 교회 건물에서 만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늘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던 예전과는 달리 연사님의 말씀과 예배에 몰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주일 학교 교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다. 매주 영적인 만찬을 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기 시작했다. 성전 추천서를 받고 성전에 갈 날을 고대하게 되었다. 단톡방과 비대면 우정 증진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도 가까워졌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지난 3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배운 여러 결론 중 하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극복하는 시련과 혼자서 견어내야 하는 시련은 그 무게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다. "...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터서 12:27) 이 구절처럼, 나는 시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살고 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소망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세며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 6명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회장: 강경남 형제(전임: 서영주 형제)
목포 와드 감독: 윤성래 형제(전임: 황형욱 형제)
총장 와드 감독: 이종윤 형제(전임: 최훈 형제)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감독: 김유석 형제(전임: 이규봉 형제)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회장: 신헌태 형제(전임: 문호범 형제)



김용범 장로
부산 스테이크
괴정 지부
서울 선교부



김윤성 장로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서울 남 선교부



김효서 자매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박의영 장로
전주 스테이크
덕산 와드
부산 선교부



디여니 프리만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한진관 장로
경기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